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9. 11.(금) 15: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9. 13.(일) 09:00
(지 면)2026. 9. 14.(월) 조간

“우리 아이 미래 경쟁력” 영유아 보호자가 묻고, 인지과학이 답하다!

- 교육부·한국인지과학회·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이야기 마당’ 개최
-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학습의 전이’와 ‘놀이’의 가치를 조명하고, 사전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현실적인 교육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해소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 한국인지과학회(회장 유제광)와 9월 14일(월) 엘타워(서울)에서 수도권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이야기 마당(토크콘서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보호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권역별 학부모 이야기 마당*의 세 번째 순서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의 교육 선택에 대해, 인지과학적 근거와 영유아기 인지발달 특성에 비추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청권(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7.15.), △영남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8.26.), △수도권(한국인지과학회, 9.14.), △호남권(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10월 예정)

보호자의 질문에 답하는 소통·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부모의 사전 질문을 유형별로 정리해 현장에서의 특강과 전문가 대담, 질의응답 등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실제 교육 선택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걱정과 고민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풀어간다.

※유튜브 채널로 전국 온라인 생중계: 「교육부」(www.youtube.com/ourmoetv), 「육아정책연구소」(www.youtube.com/@_kicce2783)

유제광 교수(한국인지과학회장)는 문제를 연습해 점수와 속도가 좋아지는 학습형 사교육의 ‘단기 수행 향상’과,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아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

‘학습의 전이’ 간의 차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 ‘문제해결력’을 꼽으며, 아이의 미래 경쟁력에 바탕이 될 다섯 가지 힘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영유아기 배움의 방식으로, ‘놀이’를 강조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탐색과 익힌 것을 활용하는 반복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놀이’의 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배움이 이루어짐을 설명한다.

< 인지과학으로 살펴보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다섯 가지 힘 >

아이에게 필요한 힘		아이에게 보이는 모습	보호자·교사가 건넬 질문(예)*
❶ 문제발견·표상	무엇을 해결할지 알아차리는 힘	궁금한 점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지점을 말·그림·행동으로 나타내고,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어? 지금 뭐가 잘 안되고 있지?” “어떤 게 궁금해졌어?” “어디서부터 살펴볼까?”
❷ 학습의 전이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활용하는 힘	놀이와 생활에서 익힌 규칙·패턴·방법을 떠올려 새로운 재료나 상황에 적용해 본다.	“우리 전에 비슷한 걸 해본 적 있지?” “그때 했던 방법을 여기에도 써볼까?” “다른 장난감으로 해볼 수 있을까?”
❸ 메타 인지	자기 생각과 배움을 점검하는 힘	자신이 아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어려운 지점을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네가 발견한 건 뭐야?” “어느 부분이 조금 어려워?” “혼자 해볼까, 같이 해볼까?”
❹ 인지적 유연성	방법을 바꾸어 다시 시도하는 힘	예상과 결과가 다르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다시 도전한다.	“생각한 대로 되었어?” “이번에는 무엇을 바꿔볼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해볼래?”
❺ 관점 전환·협력	생각을 나누며 함께 해법을 만드는 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의 방법을 연결해 해결해 간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한대?” “네 생각도 친구에게 들려줄래?” “두 사람의 방법을 같이 써보면 어떨까?”

* 아이의 생각을 열고 스스로 탐색하도록 돕는 대화(예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일수록 지식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가는 역량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 교육을 충분히 누리며, 미래 역량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 운영 계획(안)
2.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 안내문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교육연구사	곽유미 (044-203-7032)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사교육인식개선캠페인운영팀)	책임자	부연구위원	송신영 (02-398-7750)
		담당자	전문연구원	이혜민 (02-398-7727)

붙임 1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 운영 계획(안)

□ 개요

○ (목적) **교과·학습형 사교육**의 **단기 성과**와 **인지과학적 배움**의 **차이 규명**을 통한 **영유아기 교육 판단 기준 제공** 및 **현장 소통·공감 도모**

○ (일시) '26. 9. 14. (월), 오전 10:00~12:00

○ (장소) 서울 엘타워 B1 루비홀(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 전국 온라인 생중계: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 또는 큐알코드 접속

○ (참석자)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최원석), 육아정책연구소장(황옥경), 한국인지과학회장(유제광), 패널(정은표(배우), 박밝음(교사), 김태형(교수)), 사회자(서정모)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 100명 외

○ (주요 내용) 단기 성과 위주의 학습형 사교육 한계를 넘어 **미래 인재 핵심 역량**(문제해결력 등)**을 키우는 올바른 교육 방향**과 **부모 역할 모색**

- **'학습의 전이'**와 **'놀이'**의 **가치**를 **조명**하고, 사전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현실적인 교육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해소**

□ 세부 일정(안)

시간(120분)	주요 내용	비고	
10:00 ~ 10:05(5분)	개회식 및 참석자 소개	-	공개
10:05 ~ 10:15(10분)	인사 말씀	교육부장관(영상축사) 육아정책연구소장	
10:15~10:20(5분)	기념사진 촬영	강연자 및 패널	
10:15 ~ 10:40(25분)	(특강) "대체 불가한 인재가 되는 법" - 인지과학으로 그리는 우리 아이 미래 경쟁력	한국인지과학회장 유제광	
10:40 ~ 11:10(30분)	(패널 심층 토크) "가르치지 않고 키우는 진짜 역량" 전문가 4인의 시선 - 영유아 인지발달 특성과 조기 사교육의 한계, 현장 사례로 보는 놀이 중심 교육과 부모의 올바른 역할, 사교육 불안 해소 및 역할 모색	유제광 교수, 정은표 배우, 박밝음 교사, 김태형 교수	
11:10 ~ 11:50(40분)	(소통·공감 토크) 사전 질문 중심 유형별 답변 및 현장(객석/유튜브) 실시간 질의응답	유제광 교수, 패널, 청중	
11:50 ~ 12:00(10분)	폐회식	-	

붙임 2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토크콘서트 안내문